

다니엘서 - 제110번

로마의 삼중 동맹: 요한계시록 나팔의 예언적 의미를 밝혀내다

Jeff Pippenger

2024-03-01

요한계시록 9장의 첫째와 둘째 화로 등장하는 이슬람은 로마에 임한 심판을 상징했다. 윌리엄 밀러는 나팔들을 로마에 내려진 '특별한 심판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삼중 연합으로서의 현대 로마를 보지 못했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나팔들이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며,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첫째와 둘째 화)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나팔에 대한 해설을 위해 우리는 다시 키스 씨의 저술을 인용하겠다.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옳게 말한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어떤 부분에 관해서도,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곧 첫째와 둘째 화를 사라센과 터키인에게 적용하는 문제만큼 해석자들 사이에 이렇게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하여 거의 오해될 수 없다. 각각을 한두 절로만 지시하는 대신, 요한계시록 9장 전체가 양쪽에 대한 묘사를 동등한 분량으로 할애하고 있다."

"로마 제국은 정복으로 흥기했듯이 정복으로 쇠퇴했다; 그러나 사라센과 투르크는 거짓 종교가 배교한 교회를 징벌하는 채찍이 되게 한 도구였다; 그러므로 앞선 것들처럼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그 이름만으로 지칭되는 대신, 그것들은 화라고 불린다." Uriah Smith, Daniel and Revelation, 495.

밀러와 스미스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나팔들과 관련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그 심판들이 태양 송배를 강제한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점이었다. 321년에 콘스탄틴은 최초의 일요일법을 제정했고, 아홉 해 뒤에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 이로써 로마 제국의 해체 과정을 시작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이교 로마는 '한 때'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할 것이었는데, 이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부터 콘스탄틴이 제국을 서방과 동방으로 나눈 서기 330년에 이르는 360년을 의미했다.

그는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에도 평안히 들어갈 것이며, 그의 조상들도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할 것이고, 약탈물과 전리품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여 나눌 것이다. 또한 그는 견고한 요새들을 치기 위한 그의 계책을 미리 세우리니, 한동안 그러하리라. 다니엘 11:24.

그 360년 동안 로마 제국은 사실상 무적이었지만, 수도가 동방으로 옮겨지자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콘스탄티누스는 왕국을 세 아들 사이에 나누어 통제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옛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538년에 교황권이 세상의 왕좌를 차지했을 때, 오를레앙 제3차 공의회에서 주일 법령이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606년에 무함마드는 예언적 사역을 시작했고, 역사가들이 '배도한 교회에 대한 채찍'이라고 규정하는 그 나팔을 상징적으로 표상했다. 606년에 무함마드의

사역으로 시작된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역사는, 일곱째 나팔이 울린 1844년 10월 22일에 종결되었다.

둘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말하였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는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1:14, 15.

첫째와 둘째 '화'의 역사 속에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에 정복되었고, 서방의 교황 로마는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배교한 교회의 채찍'이 세속 로마와 종교적 로마 둘 다를 무너뜨렸다.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은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통해 성취된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간극을 넘어 손을 내밀어 심령주의와 손을 잡는 데 가장 앞장설 것이다; 그들은 심연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로마 권세와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데 있어 로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대논쟁, 588.

그때 셋째 화의 이슬람은 일요일 예배를 강요한 것 때문에 현대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는 그분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에 하셨던 것과 같다. 이교 로마의 경우, 그분은 첫 네 나팔을 사용하여 476년까지 서방 로마의 수도에서 로마의 지배를 끝내셨는데, 476년 이후에는 그 도시의 통치자 중 누구도 로마 혈통이 아니었다. 1453년까지 이슬람의 다섯째 나팔이 동방 로마의 통치를 끝냈다. 1798년까지 이슬람의 여섯째 나팔의 역사 속에서 유럽 열국의 옛 열갈래 분열에 대한 교황의 지배가 종식되었다. 서방과 동방의 로마 세속 왕국과 로마 종교 왕국의 몰락은 이교적 태양 숭배가 강요된 뒤에 일어났다.

미국 국민은 특별히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으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포기하며 교황주의를 지지할 때, 그들의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고 '국가적 배도'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이 배도의 결과는 국가적 파멸이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3년 5월 2일.

예언의 삼중적 적용은 앞선 두 번의 성취의 특성에 근거하여 예언의 최종 성취의 성격을 규정한다. 2001년 9월 11일에 셋째 화가 역사 속에 임했다. 그것은 본래 1844년 10월 22일에 처음 임했는데, 셋째 화는 곧 일곱째 나팔이며 그 나팔은 그때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현대 이스라엘도 반역을 선택하여 일을 마치는 대신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인침의 때는 지연되었고, 2001년 9월 11일에 다시 시작될 때까지 미루어졌다.

사십 년 동안 불신과 원망과 반역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켜 왔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 있는 불신과 세속성, 헌신의 결여, 그리고 다툼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죄와 슬픔의 이 세상에 머물게 해 왔다. 선택된 메시지, 제2권, 69.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주어진 빛에 따라 심판하신다.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았고, 우리에게 "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만일 현대 이스라엘이 고대 이스라엘이 책임졌던 그 빛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겠지만, 그들은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고대 이스라엘"이 "사십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든 것이 "같은 죄들"이었다면, 현대 이스라엘은 1863년의 반역 가운데 "광야"로 추방되었을 뿐 아니라, 거기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도 그만큼 확실했다. 그들의 "죄들"이 지금까지도 제3천사의 사역을 지연시켜 왔다.

천사가 말했다. '셋째 천사가 하늘의 곡간을 위해 그들을 단으로 묶고, 곧 인치고 있다.' 이 작은 무리는 심한 시련과 투쟁을 지나온 듯 근심에 지친 모습이였다. 그리고 마치 해가 막 구름 뒤에서 떠올라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듯하여, 그들이 승리를 거의 거둔 것처럼 승리감에 넘쳐 보였다. 초기 저술, 88.

고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도록 내쫓았던 바로 그 죄들이 1844년 10월 22일에 온 셋째 천사의 사역을 지체시켜 왔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신 후, 안식일의 빛이 보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험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인지 시험을 받았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며,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 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자,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소망과 기쁨이 새롭게 솟아났다. 나는 그들이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재림 선포에서부터 1844년에 정한 때가 지나감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의 경험을 되짚어 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망이 설명되는 것을 보았고, 기쁨과 확신이 다시 그들을 고무하였다. 셋째 천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분의 신비로운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초기문집, 254.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이며, 1844년 10월 22일에 도착했으나 그의 사역은 고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 바로 그 죄들로 인해 지체되었다. 1863년의 반역으로 인해 생긴 지연은 곧 셋째 천사의 사역의 지연이었으며, 그러므로 인침은 100년이 넘도록 방해받고 지체되어 왔다.

[민수기 32:6-15, 인용.] 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이 세대에서 그분의 백성의 죄와 범과를 오래 참아 견디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교훈대로 걸었더라면, 하나님의 사업은 전진했을 것이며, 진리의 기별은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그분의 계명을 지켰더라면, 하늘을 날아다니며, 땅에 바람을 놓아 불게 하려 하던 네 천사에게 전하는 기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불지 못하도록 네 바람을 붙들라, 붙들라' 하고 외치는 천사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선포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 주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았고, 인치는 때가 지연되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듣고 회심할 기회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은 전진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292쪽.

2001년 9월 11일, 셋째 천사가 다시 도래했고, 1863년의 반역 이후 지연되어 왔던 인치는 때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은 셋째 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의 도래였으며, 또한 인치는 때의 시작을 알리는 일곱째 나팔이기도 했다. 인치는 때는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때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했으나, 그 나팔은 방해를 받아 지연되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서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5-7.

일곱째 천사의 "음성"은 뉴욕시의 거대한 빌딩들이 무너졌을 때 내려온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음성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찬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거처와 각종 더러운 영의 소굴과 각종 부정하고 가증한 새의 우리가 되었고. 이는 만국이 그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8:1-3.

내려오는 강력한 천사의 "음성"이 천사들에게, 풀려나 지나가는 길에 죽음과 파괴를 몰고 오려 하는 "성난 말"로 묘사되는 네 바람을 불들라고 명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의 명을 수행하며, 땅의 바람을 불들어 그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어떠한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이다. 강력한 천사가 동방(또는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이 가장 능한 천사는 그의 손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 곧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불멸, 즉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그 표나 각인을 새기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가장 높은 천사의 음성이, 이 일이 수행될 때까지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놓아주라고 신호를 줄 때까지, 네 천사들에게 네 바람을 억제하라고 명령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45.

바람을 불잡으라고 네 천사들에게 명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이며, 그의 '강한 음성'은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숙고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요한계시록 7장에는 얼마나 놀라운 묘사가 주어져 있는가! 네 천사가 땅 위에서 일을 수행하라는 사명을 받는다. 그러나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어 세상을 사신 그분께는 택하신 소수가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요한의 시선은 또 다른 장면으로 향했다: '또 보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더라'(요한계시록 7:2). 이는 누구인가? 언약의 사자다.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신다. 그는 위로부터 돋는 해시다. 그는 세상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한복음 1:4).

이사야가 묘사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그는 하늘의 천사 군대, 곧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크게 외쳐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요한계시록 7:2, 3).

여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그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네 바람을 억제하라는 명령이 네 천사들에게 주어졌다. 장 전체를 읽어라. '해치지 말라'는 외침은 회복자요 구속주께서 발하신 것이다.

심판과 진노는 정해진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동안만 유보되어야 했다. 그 메시지, 곧 경고와 자비의 마지막 메시지는 돈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과 안일함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에 인간이 부적합함으로 인해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지체되어 왔다.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힐 그 천사는 하늘의 빛이 그들을 통해 비칠 수 있는 인간의 도구들을 기다려 왔고, 그리하여 그들은 협력하여 그 거룩하고 엄숙한 중요성에 걸맞게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그 메시지를 전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222쪽.

그리스도이신 셋째 천사는 1844년 10월 22일에 임하신 인치는 천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분이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사역은 2001년 9월 11일까지 지연되었다. 그때 셋째 화의 이슬람이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을 무너뜨렸고, 인침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시점에 열방은 '분노했으나 제어되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첫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는 동안 네 천사에게 붙들고 있으라고 명하는 음성이다.

예수는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준다. 그리고 1993년 2월 26일, 셋째 화의 이슬람이 세계무역센터 북 타워의 지하 주차장에서 트럭 폭탄을 폭발시켰다. 이 폭발로 건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으며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공격은 타워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중대한 테러 행위였고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을 예고했다.

인침의 때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지만, 그에 앞서 8년 전에 이를 예고하는 일이 있었다. 2023년 10월 7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의 공격은 인침의 때의 종결을 예고하는 것이다. 셋째 화의 예언적 특징은 첫째와 둘째 화의 예언적 특징을 통해 정립되었다. 요한계시록 9장 서두의 구절들에서 14만 4천의 인침이 묘사되어 있다.

그 주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올 것이라면, 죄 많은 세상 위에 이토록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요한은 자연의 요소들—지진, 폭풍, 그리고 정치적 분쟁—이 네 천사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바람들은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통제 아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안전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능한

천사가 동쪽(혹은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가장 능한 천사는 그의 손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 곧 오직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이마에 표나 새김을 새기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가지고 있다. 그 표를 받은 이들에게는 불멸, 곧 영생이 허락된다. 바로 이 가장 높은 천사의 음성이 권세를 가지고 네 천사에게 명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풀어 놓으라는 호령을 내릴 때까지, 네 바람을 억제하게 하였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을 입을 것이다.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를 피하고 실행하는 자들은 지나쳐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에 있어, 위대한 반형적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의 자리를 채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 표시될 것이다. 자기 구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굳게 바라보고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들의 이름은 인침 받은 자들의 수에 들 것이다. 진리의 모든 빛이 그들의 영혼 위에 번쩍 비추고 있어 그들이 고백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죄에 유혹되어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부패시키며 죄에 함께하는 자들까지 더럽히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등불은 있으나 그릇에 기름이 없어 한밤의 흑암 가운데 버려질 것이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를 지니고 떠오르리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 인침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것과 동일하다. 요한 또한 이 가장 놀라운 계시의 증인이었다. 그는 바다와 파도가 포효하는 것과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이 요동하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 물이 포효하고 요동치며 그 물의 불어남으로 산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는 재앙, 역병, 기근, 그리고 죽음이 그들의 끔찍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45.